

남원의료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1등급

남원의료원(원장 박주영)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5월 28일 발표한 제8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만 40세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6,337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주요 평가지표는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리 확장제 처방 환자비율로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남원의료원 박주영 원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기 증상 가운데 대표적 질환으로 신속한 진단과 예방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해, 환자의 조기진단 및 효율적인 치료로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학, '새만금JOB페스타' 참여

전주기전대학 대학알자리플러스센터는 5월 31일 군산대만금벤치센터(GSC)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JOB 페스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도내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채용설명회 △취업 특강(NCS 기반) △금융 특강 △취업·창업컨설팅 △마음세탁소(힐링체험 프로그램, 우울감 검사 등)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퍼스널컬러, 증명사진 촬영, 캐리커처, 타로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채용 행사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도 함께 선사했다.

한편 대학알자리플러스센터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기전대학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등 지역 대학생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등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컨설팅과 MBTI검사 진단 등을 진행했다.

전주기전대학 조덕현 센터장은 “새만금 JOB 페스타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 외에도 지역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자원봉사 단체, 어르신에 삼계탕 나눔

남원시 봉사왕 자원봉사 단체(대표 왕홍석)에서 5월 31일 도동동에 거주하는 75명의 어르신에게 한방 누룽지 삼계탕을 대접했다.

봉사왕 단체에서 추진하는 삼계탕 나눔 사업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2023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3개소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에 삼계탕을 전달하며 나눔의 정을 실천했다.

왕홍석 대표는 삼삼단을 운영 중이며, 2021년부터 “봉사왕”이라는 기부 나눔 봉사단체를 설립해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삼계탕을 드신 어르신들은 “더운 날씨에 기력이 없었는데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니 몸보신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기운이 절로 난다”라며 기뻐했다.

한편 김윤자 도동동장은 삼계탕을 후원한 봉사왕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주산면, 어르신 '청춘영화관' 개관

부안군 주산면은 가정의 달 5월의 푸르름과 따뜻한 이웃사랑의 기운이 가득하다.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성철)는 지난달 3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청춘영화관’을 개관했다.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특화사업인 청춘영화관 사업은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관내 홀몸어르신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이날 행사는 영화를 관람하고 안전팔찌를 만드는 활동으로 진행되어 어르신들에게는 마음의 주름을 펴는 시간이 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성철 민간위원장은 “홀몸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되도록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촌공동체 미디어 발전방향 제언

우석대-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청년대답' 공동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공동체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청년대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 31일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마지영 LINC 3.0 사업단 지역혁신센터장과 김은규 미디어영상학과장, 송병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이철규 농촌활력팀장, 정중식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미디어영상학과 재학생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미디어영상학과 재학생들은 다양한 현장 조사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



식과 개선 방향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청년대학생·유학생 의견 △소상공인 SNS 마케팅 △농촌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미디어교육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이어 정중식 집행위원장이 미디어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온 선진 사례를 소개했다.

김은규 미디어영상학과장은 “이번 청년대답은 농촌지역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 미디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기자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캠페인 동참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달 31일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 헬린자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창군민들은 원전 주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원전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제도의 문제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고창군 등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28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해서 지방교부세 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올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된 28개 지자체에 균등 배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경우 1개 지자체 당 약 95억원의 교부세가 지원된다.

임정호 의장은 “고창을 포함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원전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



이 500만명에 이른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 만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 고창군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전했다.

임정호 의장은 심덕섭 고창군수의 지목을 받아 헬린자에 참여했으며, 다음 헬린자 참여자로는 김성수 전북도의회 의원을 지목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 조은정 주무관

전북도는 기업에로해소지원단 조은정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5월, 이달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5월의 해피바이러스 주인공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조은정 주무관은 모두에게 먼저 아침인사를 건네며,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는 등 부서원 화합과 부서 분위기 환기에 적극 앞장섰다.

특히, 도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추진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장기 병가 직원 배려, 세대간 소통의 장 마련 등 부서내 직원간 애로사항도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료로 자처했다.

또,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에로해소 지원으로 혁신도



정상 최우수상을 수상해 직원들이 다시 한번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마이산홍삼사과연-강동구 새마을지도자 일손돕기

진안군 부귀면은 진안군 마이산홍삼사과연구회(회장 전형규)와 서울 강동구 새마을지도자회(회장 성홍수)가 농번기를 맞아 인력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일손 돕기를 추진 및 노동교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마이산사과연구회와 노동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새마을 지도자 회원 90여 명이 부귀면 황금리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661㎡의 사과 열매수거 일손 돕기를 진행했으며 일손 돕기 후 사과, 사과즙, 벌꿀을 구입하는 등 소문의 시간을 마련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약속했다.

일손 돕기에 참여한 성홍수 회장은 “농가의 인력 부족으로 작업 현장에서 사과 열매수거를 몸소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농촌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상생과 협력으로 나눔 활동을 실천해왔다”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북지방우정청, 남원시복지관에 선봉기 전달

남원시는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이 최근, 우정노조(위원장 이행무)와 남원시사회복지관에 관내 취약계층의 사원한 여를 나기를 위해 선봉기 30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받은 선봉기는 예측되는 올여름 역대급 폭염에 관내 취약계층의 더위를 식히고 나아가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꽃마음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정청은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지역발전형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우체국 직원들로 구성된 ‘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과 함께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등 이웃같이 친밀한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물품 후원에 감사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NO EXIT’ 마약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NO EXIT’는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SNS 릴레이 캠페인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목을 받은 이장호 총장은 5월 31일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패널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후 SNS에 공유했다.

이장호 총장은 “마약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모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장호 총장은 후속 주자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채규남 원장과 전북산학융합원 나석훈 원장을 추천했다.

/군산=이재춘기자



황석표 농관원 무주사무소장, 마약근절 캠페인 동참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무주사무소 황석표 소장이 지난달 30일 마약근절 캠페인 ‘NO EXIT’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하는 ‘NO EXIT’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황석표 소장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의 지목을 받아 이날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무주농협 광동영 조합장을 지목했다.

이날 황석표 소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든 인증사진 촬영과 함께 “마약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마약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순창군, 평생직업교육 수강생 학습나눔 이어져

순창군과 전남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협업으로 진행한 평생직업교육 과정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발휘해 학습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된 학습나눔 활동은 정리수납전문가 2급 과정 수강생 14명, 플라워디자이너 2급 과정 수강생 약 15명이 참여했으며, 정리수납 수강생은 한부모 가정에 정리수납과 대청소 봉사활동을, 플라워디자이너 수강생은 꽃바구니를 제작해 노인화와 장애인단체에 전달했다.

이 외에도 바리스타2급 과정, 제과제빵 과정, 정원다자이너 과정 수강생들도 앞으로 학습나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29일 학습 나눔에 참여한 김씨는 “정리수납과정을 학습하고 직접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펼쳐 잘 정돈된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다”며, “2급 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1급까지 배워서 창업에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주 행정과장은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운 것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운 것을 나눔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일 기자